

## 인쇄문화인으로서의 책무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와 미래의 사회를 '문화의 시대'라 일컫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진 21세기 들어 이 말이 친근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 자연스런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의식주(衣食住)가 해결되고 가치관이 높아지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기 마련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이는 인간 스스로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상품 개발을 촉진시킴을 의미하기도 한다.

### 문화의 중심은 '인쇄'

주변의 시선이 어떻든 문화의 중심에는 분명 '인쇄'가 있다. 인쇄없이 지식이 존재할 수 없고 상품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인쇄물(신문)을 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인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책이 없다면 지식은 어디에서 얻고 자료는 어떻게 보관한단 말인가.

이처럼 인쇄문화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산업의 뿌리인 '인쇄'가 근래 들어 한마디로 죽(?)을 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쇄중주국의 위상이나 자긍심도 찾아보기 어렵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헤쳐나가다가 지쳤기 때문이다. 물론 인쇄가 국가문화부문 기간산업이고 서울시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출판인쇄진흥법이 발효돼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유네스코로부터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받은 직지심체요절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세계직지문화협회가 청주에서 거국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올해부터 '직지'의 위대함을 기리는 유네스코 직지상도 제정되어 인쇄업계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만으로 인쇄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의 핵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인쇄인은 별로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인쇄인 스스로의 분발도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대국민·대정부 홍보강화 시급

사실 우리의 인쇄문화 산업은 원초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 틀림없다. 학계에서는 한 나라의 인쇄출판업이 자생하려면 인구가 최소 7천만 명은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만 명을 밑돈다.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이나 수출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 자생적 발전은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속에서 인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문화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인쇄인 스스로 '인쇄는 산업이 아니라 문화'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문화의 핵심이요 수출전위 산업인 인쇄문화를 중흥시키기 위해 장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쇄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대정부 홍보를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홍우동·본지발행인)